

관세청, 국세청과 체납자 합동 가택수색 우수팀 마약류 정밀 분석 우수팀 특별성과 포상

- 국세청과 함께 가택수색 후 역대 최고액인 7.6억원 징수 등 체납액 징수 기여
- 신종 마약류 최초 규명 등 불법 마약류 원천 차단으로 국민 건강 보호

관세청은 9월 15일(화) 서울본부세관에서 체납정리 활동에 특별한 공을 세운 우수 체납관리팀과 마약류 분석 적발에 특별한 공을 세운 인천공항세관 마약류 분석팀에 대한 특별성과 포상을 실시했다.

이번 포상은 체납관리 및 마약류 분석 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체납정리 및 마약류 분석적발 우수 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관세청은 이날 빅데이터 분석으로 재산은닉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를 선정하여 국세청과의 적극적인 협력과 철저한 합동 가택수색을 통해 현금과 수표 등 은닉재산을 현장에서 적발하여 7.61억원을 징수한 서울세관 125추적2팀 6명에게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또한 국세 체납자가 신고하지 않고 휴대반입하려던 은 그레놀 25.15kg (범칙시가 9,400만원 상당) 적발 및 관세 체납자가 반입한 명품가방 등 8점을 현장 압류한 인천공항세관 체납관리팀 3명에게도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

아울러,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마약류의 국내 유입을 원천 차단한 팀에도 포상이 이어졌다.

인천공항세관 마약류 분석팀은 프랑스에서 국제우편으로 반입된 미황색 분말을 정밀 분석하여 기존의 마약류가 변형된 신종 마약류 (N-Ethyl-2C-B)임을 국내 최초로 규명해 냈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물질을

포함한 총 6종의 신종 마약류에 대해 식약처에 임시 마약류 지정을 요청하는 등 신속한 국경 차단 조치를 이끌어내어 국민 건강 보호에 기여한 인천공항세관 마약류 분석팀에게도 특별성과 포상금이 수여되었다.

노지선 세원심사과장은 “이번 국세청과 합동 가택수색은 체납정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업한 우수 사례이며, 신종 마약류의 국내 반입을 선제적으로 차단한 것 역시 탁월한 성과 사례”라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맡은 바 직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직원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특별성과 포상 등 보상체계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심사국 세원심사과	책임자	과 장	노지선 (042-481-7870)
		담당자	사무관	김동원 (042-481-7871)
			사무관	정상우 (042-481-7642)

